

01 교회소식

새해 새 비전

전 세계 만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2016년 기도제목을 통해 새해 비전을 밝힌다.

02 생명의 말씀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빛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다.

03 지교회 이모저모

모든 나라 모든 영혼에게 ...

목자의 마음을 알아가며 일본의 영혼들에게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유승길 목사의 일본 선교 리포트.

04 간증

“영생과 참된 행복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축복받은 김은숙 권사와 에이즈를 치료받은 콩공민주공화국 밤파 셀라 오메르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19호 2016년 1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하리라!

### 끝이 없는 권능으로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 2016년

“전 세계 1만여 지교회와 협력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종과 성도님들! 2016년 새해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전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지난 12월 27일, GCN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지·협력교회에서 함께한 사무연회 석상에서 '2016년 교회 4대 비전'을 발표하였다. 매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새롭게 제시되어 성도들은 이를 위해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매일 밤 기도하게 된다.

#### ❖ 첫 번째 비전, 빛의 열매를 맺은 성도로 가득한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엡 5:9)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단은 빛의 열매를 맺은 자녀들로 가득한 제단을 말한다.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자의 희생으로 변화된 만민의 성도들은 참 빛이신 주님의 마음을 닮고자 힘써왔다. 더 나아가 빛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악을 싫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지 가운데 택한 선과 의를 변함없이 지켜 나갈 때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 두 번째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딤후 2:4)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주님 마음을 닮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 이 제단을 세우셔서 만민을 구원하되 알곡 성도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여 온전히 하나 됨으로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 ❖ 세 번째 비전, 성결한 자녀로 인해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시 37:6)

하나님께서서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때 기뻐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변화된 영과 온 영의 사람이 많아질수록 영광의 빛이 더욱 강한 교회가 되고, 만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난 역사가 펼쳐져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섭리를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며 '대성전의 주역은 내가 되리라.'는 각오로 뜨거워지기 바란다.

#### ❖ 네 번째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창대하게 이룰 '끝이 없는 권능의 제단'(시 62:11)

끝이 없는 권능의 제단이란 하나님의 권능이 끝이 없듯이 이 제단의 권능의 역사도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100% 완성된 재창조의 권능으로 본격적인 제3도약기에 펼쳐 사역을 통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 재창조 권능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며 복합적인 재정의 축복도 예비하셨다. 또 주의 종 및 일꾼들과 성도들이 온 영의 흐름을 타면서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깨워 구원의 길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인도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끝이 없는 권능으로 창대히 펼쳐질 대망의 2016년을 기대한다.

<b>01</b> <b>JANUARY</b> 2016.1.03~1.09	<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 ■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 ■ 믿음을 척량하시니 1-4 ■ 성령의 9가지 열매 1-4 ■ 사랑 5 ■ 생명의 씨 4 ■ 2차 영혼육 3-8 ■ 심자가의도 8-12 ■ 육과 영 ■ 창세기 강해 86-91 ■ 에녹 4 ■ 요한일서 강해 37-39	<b>GCN TV설교</b>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 (아수진 목사) ■ 빛의 열매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3 (이희선 목사) ■ 옮기 강해 22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0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5 (김수정 목사) ■ 사랑의 법을 따라 (고경아 전도사)	<b>예능 프로그램</b>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5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9 ■ 내 마음의 찬양 24 ■ 창조와 과학 20 ■ English 3 ■ 모두 드려요 41 ■ 뷰티풀 라이프 4 ■ 즐거운 요리 22 ■ 흥겨운 소리 5 ■ 옛날 옛적에 11 ■ 플로리스트 10	<b>해외성회 프로그램</b> ■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3 ■ 회상 (시즈) 8
	<b>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b>			



당회장 이재록 목사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9)

#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악을 싫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자신을 희생해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선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릇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한 선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야 선하다는 말을 들을까?’ 계산하며 따진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섬기면 축복을 받겠지.’ 하고 보상을 바라면서 행한 것도 아니지요.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선한 마음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과 희생이 저절로 우러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할 때 진정 선을 사모하여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선을 사모하여 행할 때라야 참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2.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로움이란 옳은 일을 위해 희생하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행함이 반듯하고 절도 있으며 도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해 불의와 타협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는 대로 행하지요. 성실하게 충성하며 불의와 타협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또 율법에 금하신 음식 먹지 않으려고 채식만 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하셨지요. 산해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 주셨고 놀라운 지혜와 영감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좇아 바르게 사는 것은 좋지만 자기 의와 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처지였지

만 생명 다해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신처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동족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으며 “나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지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의를 지켰어도 그로 인해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할 때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맺으려면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라야 하지요. 의의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 그 행함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도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 하시니 즉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신뢰는 점점 더 깊어졌지요.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온전히 신뢰하여 순종하였습니다(히 11:17~19).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그 뜻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었지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물론 신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 깊이 새기고 다졌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도 더 밝히 깨우치고 더 깊은 영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신뢰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지요. 아브라함 같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쳐 생명 다해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 3.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기지 않으며 한번 정한 일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급히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달려가지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거나 깨달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행하리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와 결단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 행할 때 믿음의 반석과 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다시 마음을 정하여 이 진실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 영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겸해져야 합니다. 착하지만 의가 부족하면 우유부단하고 어리석게 보이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상대를 영으로 이끌어주거나 생명을 낳게 할 수 없으니 ‘영적인 착함’이 될 수 없지요. 반대로 의롭기만 하고 착함이 부족하면 이것도 덕이 안 되니 진리의 빛을 비추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착함과 의로움이 겸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해도 반드시 진실함이 함께 맺혀야 합니다. 한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악을 버리고 순종하여 의를 행한 사람이라도 다시 악을 취하고 불순종을 택하면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악이 없고 순종만 하던 생명 아담도 자유의지 속에 불순종을 택했을 때에는 육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빛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진실함을 이루어 자신이 택한 선과 의를 변함없이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은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이란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로 가득 찬 제단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빛의 열매란 무엇이며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착함이란 선하고 악의가 없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루면 남에게 악한 감정을 품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을 베풀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돕고자 하지요(마 5:39~42).

이러한 선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전에 즐겨하던 악과 비진리를 마음에서부터 멀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권투나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피투성이가 된 선수를 보고 “잘 때렸다.”며 통쾌하게 여기거나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사모한다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보며 “재미있다. 통쾌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멀리하게 됩니다.

물론 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처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일본 열도에 전파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전파하는 우리 교회는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 선교의 초석이 된 이다만민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담임 유승길 목사(사진, 예수교일본연합성결회 총회장)를 통해 들어본다.



▲ 일본 선교현황 : 지·협력교회들은 성령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일본의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 1994년, 일본에

### 첫 만민지교회가 세워지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휴가를 준비하던 어느 날, “성경만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라.”는 강한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 이에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통회자복하였다.

1988년, 신학교에 편입한 후 동기생을 통해 참석하게 된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는 참으로 성령 충만하였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율기강해 말씀은 영적인 청량제와 같았다. 그해 7월,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고 2년이 지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게 되었다.

때마침 1992년,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 ‘한·일 연합성회’를 통해 성령의 복음을 접하게 된 일본 목회자들은 지속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1월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혼슈 지역 중심부인 나가노현 이다 시에 교회를 개척하여 본격적으로 성령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 일본 선교의 기폭제가 된

### 이다, 신슈, 나고야 연합대성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 개최한 1994년 ‘이다 지역 연합대성회’,

1996년 ‘신슈 지역 연합대성회’는 성결의 복음을 일본 전역에 전파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바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며, 비틀어진 팔다리가 펴져 걷고 뛰는 등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나고야 신유대성회’ 때에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13명의 농아 중 7명이 듣고 말하는 등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이 무수히 나타남으로 일본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 성회들을 통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일본 목회자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큰 은혜를 받았고, 성회의 영향은 지금까지 교회 성장의 기틀이 되고 있다.

## 권능의 손수건으로

### 선교의 새로운 장이 펼쳐져

어느 때부터인가 영적인 한계와 더불어 교회가 더디게 성장하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4년 8월,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 초청 일본 종단 손수건 집회’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해 주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는 위력을 체험한 것이다.

더욱이 그해 12월, 당회장님께서 “믿음으로 손수건을 잘 활용하세요.”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기에 곧바로 이다만민교회 첫 손수건 집회를 열었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야뇨증 등 각종 질병으로 환자 등록한 성도들이 모두 치료받아 영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05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손수건 집회를 개최하니 성도들은 통회자복하고 영육간의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받았다. 새신자들은 영의 세계를 알아가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천국 소망으로 참 믿음을 소유하며, 일꾼들은 더욱 불같이 달려가는 은혜가 넘쳤다.

권능의 손수건 집회는 이다만민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회가 되었다.

##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 체험하는 일본의 영혼들

권능의 손수건과 더불어 GCN 방송을 통해 예배 때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와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는 일본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손수건 기도로 가네다 시즈코 집사는 수년간 고생하던 냉수족증을, 기타하라 야키코 집사는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하라 치에 집사는 오십견을 치료받았다. 또한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로 마츠시마 다이키는 유산의 위험에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고, 아토피성 피부염도 화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치료받았다.

이 외에도 시모다이라 미야코 성도는 백내장과 동상을 치료받는 등 간증 사례는 지면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 목자의 희생과 헌신 앞에

### 나를 내려놓다

이다만민교회는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GCN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 세미나, IT 선교와 더불어 사회봉사라는 아이템을 접목하여 기독교 자체를 잘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나름대로 일구다 보니 어느 틈엔가 내가 했다는 사심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깨닫지 못했다.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아무 대가 없이 다 내어주는 목자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비로소 내 교만과 사심을 철저히 깨우쳐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100%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곧 영의 마음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사심과 교만을 벗으니 일본 지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한다. 더욱 분발하여 만민의 세계 교구화를 이루는데 밀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변화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 사진은 가운데 이다만민교회 전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나고야 신유대성회 시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료받아 간증하는 사람들, 이다만민교회 상공에 나타난 원형 무지개, 신슈 지역 연합대성회, 이다만민교회 창립예배, GCN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야외예배 시 공연하는 이다만민교회 학생들.

#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가정, 웃음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김은숙 권사 (49세, 1대대 4교구)



▲ 사랑하는 가족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김은숙 권사(사진 왼쪽\_ 남편 채윤석 장로, 첫째 하영 자매, 오른쪽\_ 둘째 정수 형제).

저는 요즘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가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여 매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치료되지 않거나 갑자기 악화될 때에도 기도하면 이내 호전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였지만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1994년, 결혼을 계기로 제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채윤석 장로님은 결혼 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 설교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는 물론, 크리스천다

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2002년 3월, 남편의 근무지가 서울로 옮겨져 온 가족이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에게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편의 모습에 괜히 시기질투가 나는가 하면, 남들에게는 잘해 주면서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제가 바라는 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바가지로 굶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2011년,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당회장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기준에 대해 설교하시며 주님을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룰 것을 강조하실 때부터

저희 부부는 변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남편은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되었고, 언행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며 설거지는 물론 밥까지 짓고 때로는 식후에 커피, 과일까지 서비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면 10미터쯤 앞서 걸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제 걷는 속도에 보조를 맞춰주며 가방도 들어주고, 때론 안마까지 해 주는 등 제

마음을 알아 섬겨 주었지요.

아침에는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며, 아들에게 다정한 친구처럼 대해 주니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변화는 제가 더욱 성결을 사모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물론 말씀 무장과 간절한 기도, 충성으로 마음을 넓혀갔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주님의 은혜

에 감사하고자 하였더니 저도 하나님 은혜로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선교회에서 기관 임원으로, 남편은 하나님 권능을 과학으로 입증하는 WCDN(세계 기독교사네트워크) 회장으로, 저는 살람 성가대 총무와 중국 2교구 부장으로 섬기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죽음을 앞둔 에이즈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밤파 셀라 오메리 성도 (65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민교회)

어느 날부터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2011년 5월에는 몸에 상처가 생기면서 피가 나오고 반점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요. 심상치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복용한 후 몸에 반응에 따라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있다며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약을 먹으니 구토와 피곤한 증상이 있었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다른 약을 주면서 두 달 후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 몸은 더욱 약해지고 힘들어 걸을 수 없었으며 음식도 잘 섭취하지 못하였습니

다. 두 달 뒤 제 대신 아들이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에이즈’이며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아무런 치료 방법도 없이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을까 하여 주변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처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에게 킨샤사민교회 성도인 이모가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는 소망의 빛이 드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킨샤사민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담임 이호수 목사님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듣게 되었고, 당회장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도 치료받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약을 끊고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몸에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제 안에서 일

어나고 있었지요. 이에 온전히 치료를 받고자 GCN 녹화방송을 통해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로 몸 전체가 아주 뜨거워졌지요. 그 뒤 다리의 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천근만근이던 몸이 가벼워졌으며,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 몸은 눈에 띄게 호전되어 반점과 상처가 싹 사라지고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제 생명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북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들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7195-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552-7397, 010-8163-153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